마귀가 전도한 사람

(마태복음 13:36~43)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귀가 전도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귀가 전도한 사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신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마귀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41~4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로 비유된 악한 자의 아들들은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고 번역된 헬라어 브뤼그모스(βρυγμός)는 '물어뜯다'의 동사 브뤼코(βρύκω)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맹수가 몹시 굶주려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흔히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을 후회하는 모습으로 연상합니다만 원문의 뜻을 고려한다면 실제 뜻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질 때에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겼던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것은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으르렁거림이 나타날 때에는 마음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간다는 것은 그리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울며 그리워하나 결코 가질 수 없으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중에 엑소(EXO)라는 그룹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엑소가 2013년에 1집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으르렁"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하여 각종 상을 휩쓸었는데 가사가 참 노골적이고 강렬합니다. 일부를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 널 노리는 시선들 / 내 안에 일어난 거센 소용돌이 /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 나 으르렁으르렁 으르렁대…"라는 노래입니다. 한 여자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짐승이 굶주렸을 때에 으르렁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인간이 그리움을 갖는 이유는 마음의 공백 때문입니다. 이 공백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크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공백이 비어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우고 싶어 하는 본질적 열망이 바로 그리움입니다. 어떤 대상을 목표로 했을 때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만든 자리가 비어있기에 만들어진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채움에 대한 열망이 세상을 향할 때에 그리움은 으르렁거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리움은 세상을 향한 으르렁거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엑소의 노래에서 한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으르렁거림으로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으르렁거림은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지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할 그리움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17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리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아이로 채우고 싶다는 굶주림으로 생겨난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그리워 할 때에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은 사람의 수준에서 짐승으로 바뀌어 굶주림을 영원토록 채울 수 없기에 슬피 울며 으르렁거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속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엑소의 노래는 마치 오늘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해석이라도 한 듯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짐승이 굶주렸을 때의 으르렁거림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를 통해 악한 자의 아들들의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예수 이름

을 부르며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소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는 독보리라 불릴 정도로 보리나 밀과 비슷하여서 자라는 도중에는 골라낼 수가 없기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입에 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분이 어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련된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기에 추수 때가 아니고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말하는 것만 닮았을 뿐이지 그 마음가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워하느냐 으르렁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굶주리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을지라도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에서는 채움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천국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대상들을 향할 때에 사람은 짐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워하는 대신 으르렁거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대상은 입에 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리움이 아닌 짐승의 포효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안팎이 모두 짐승이 되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 대상이 돈입니다.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돈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도구삼아 돈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은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담은 대상을 실제로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음에는 돈을 담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제 돈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움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돈과 건강과 자녀의 형통 등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그리워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가라지를 뽑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존재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설교를

하지만 마음에서는 큰 예배당을 좋아하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움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그리움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그리움의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그리워할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그리움의 방향은 오직 천국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움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있는 자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입니다. 이들에게는 건강과 출세와 인기가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말만 가지고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으르렁거림이 끝내 하나님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이름은 마귀의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41~42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을 이 세상을 향한 으르렁거림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불법입니다.
그리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길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으르렁거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엑소의 '으르렁'의 노래 가사에서 나타난 연인을 향한 모습들 또한 제목 그대로 마음의 으르렁거림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연인을 대할 때에 비로소 그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합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법이란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돈에 대한 으르렁거림으로 대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관계에서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돈을 대한다면 합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대한다면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배려를 기대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에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대로 그리움을 채울 수 없어 으르렁거리며 사는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짐승의 포효가 삶의 전반에 깔리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배우자에 대한 으르렁거림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부모의 으르렁거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으르렁거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전도를 받은 상태이고 마귀가 보낸 선교사가 되며 마귀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의 임무는 천국의 아들들 틈에 스며들어가서 마귀의 가르침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서 그리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언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리워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마귀는 으르렁거림을 합법적인 그리움으로 둔갑시켜서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가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진짜 그리움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당장 그리워할 대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움은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기에 후천적인 배움과는 무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학습에 의존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화내고 돈이 생기면 웃는 것을 보면서 돈에 대한 그리움을 학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가까이 온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배움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하는 일은 학습으로 배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에 희망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린 마음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렇게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나 형통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도록 마귀가 특별히 심어놓은 악의 씨들이 바로 가라지이며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성도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을 죽은 뒤의 일로 미루어둡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는 평범한 전도 문구에조차 이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워해야할 천국은 지금 마음으로 체감해야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천국을 향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지금 천국을 체감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천국은 육체의 죽음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된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께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 마귀가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할 때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 으르렁거리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주십니다.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전도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에 대해 으르렁거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부를수록 돈과 건강을 그리워하면서 포효하고 으르렁거리게 만듭니다. 으르렁거리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으르렁거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예수이름을 전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전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움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로써 그 자체로 그리움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그리움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게 해주십니다.

방언에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하게 일컬어 질 수도 있으며 망령되게 일컬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대해 으르렁거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거나 걸려 넘어진 천국의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이어지는 길이 제시될 때에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천국의 그리움을 되찾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의 길을 제시해줘도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곧 세상에 대한 으르렁거림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짐승으로의 삶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하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의 아들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배워본 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세상에 대한 으르렁거림만을 배우고 그것이 전부인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학자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교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의사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의사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배움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을 그리워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그 그리움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속성이 시시때때로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으르렁거림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부모로써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그리워해야지 자녀의 형통을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형통에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된 부모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목말라하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죽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채우고 천국이 현실로 체감되기를 그리워하는 중에 가족도 대하고 직장생활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하는 중에도 돈을 갈망한다면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장사를 하는 중에도 하늘을 그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으르렁거리는 짐승에 대해 죽었을 뿐인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대해 으르렁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승천 우편까지 가신 길을 따라서 세상에 대한 으르렁거림에 대해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고백한 거처럼 이제는 하늘을 향한 그리움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삶의 현장에서 지속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을 향한 으르렁거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닌 천국의 아들들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이제는 기필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